

# 올 가을국회 '식물국회' 우려

총선 앞두고 '마음은 콩밭'인데 재보선까지 겹쳐

민생법안 심의·국감 등 '하는 둥 마는 둥' 빨간불

10월 재보선에 새 서울시장을 뽑는 대형선거가 추가되면서 9월 정기 국회가 재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느라 부실 정기국회가 걱정됐는데 정기국회 중에 매미드급 선거판까지 형성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새해 예산심의, 정책질의, 국정감사를 등 한 허나 채 여야 정쟁에 열을 올릴 것이다.

전례를 보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실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

에 앞서 당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윤통 선거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 국회가 여야 간 선거전의 일환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은 ▲9월19일~10월8일 국정감사 ▲10월10일 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10월11일~17일 대정부질문 등이다.

우선 국정감사는 전 국회의원이 의원실의 모든 역량을 동원,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해야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각 후보들의 지원 경쟁을 하느라 재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여야 모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재보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당장 서울시장 후보 인선, 재보선 유세지원단 구성, 스 타입 의원들의 현장투입 문제가 급선무가 돼버렸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 간 정치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핵심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법안 ▲국방개혁안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질 춤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올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쟁은 이미 '풀 건너갔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11월~내년 1월에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치를 것으로 보여 더욱 정기국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번 정기국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빈자리가 속출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매우 뒤숭숭한 국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와 전당대회가 기다리고 있어 의원들 마음이 '꽃밭'에 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아당이 터무니없는 당리당략으로 반대를 한다면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노-진보신당 통합

내달 25일 대회 열어 새 진보정당 창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도 통합 모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내달 25일 창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창당키로 했다. 양당은 통합의 결집들이 됐던 국민참여당의 통합문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 이 같은 내용의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양당이 밝혔다.

참여당 통합 문제에 대해 민노당은 진성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신당은 거부하고 있어 창당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당의 진성당원은 민노당이 3만5000여명으로, 진보신당(1만4000여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민노당은 참여당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진보신당은 진보정당과 이념이 다른 참여당의 합류를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공모와 여론조사를 거쳐 당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및 국민중심연합 등 보수정당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조 또는 합당을 모색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현재 민주당 등 야권 세력들이 야권통합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보수대통합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중심연합·심대평 대표와 자유선진당 대표는 최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 권한대행을 잇따라 맨났다. 선진당과 국중련은 지난 17일 당대당 통합에 합의한 바 있다. 변 대표는 희망연대 서정원 전 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대표와 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진당·국중련 통합 정당과 희망연대 간 '선(先) 정책공조, 후(後) 합당 모색'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철래 권한대행은 한나라당과의 합당 결의가 유효한 만큼 내달 추석 연휴 이전까지 이 문제를 결론짓고, 이때까지 합당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통합 정당과의 정책 공조는 물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초대형 허리케인**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린(Irene)'이 강타한 27일(현지 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린빌 지역에서 차량 한 대가 강풍에 쓰러진 전신주를 피해 서 있다. 이날 기상악화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지역의 수천 가구가 정전됐다. /연합뉴스

## 국가 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위/한 연수생모집

### 1 연수일정 (2011년 제7기)

- 개강일시 : 2011. 9. 5(월) 기초주간반 9 : 00, 기초간반 18 : 00  
    심화주간반 9 : 00, 심화이간반 18 : 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1. 8. 11(월) ~ 2011. 9. 2(금)
- 수업기간 : 2011. 9. 5(월) ~ 2011. 12. 23(금) (1학기 15주 105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주간반, 아간반 각 30명  
    심화반 - 주간반, 아간반(기초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본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09 : 00~12 : 30  
    - 아간반 18 : 00~21 : 30

### ● 수료 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연합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인증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인증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인증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병과후학교 강사 추천

###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소중한 우리자식 엉덩이를 차버리자!  
젊은이여 할수있다는 사고로 도전하라!  
호남의 미래들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 인턴쉽형 외국어 연수 「호주Working Holiday」

★ 좋은 직장은 SPEC보다는 STORY를 선호

☆ 외국에나가 영어도익하고 세상도 경험해야

좋은 일자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 긍정적인 사고와 균형한 면 있으며

• 무일푼으로 세계를 경험할수 있다.

### 후원회사 나무에듀컨설팅

- 대 표 : 류 식(텔런트 문모양 외삼촌)
- 호주현지업체 · 교육청 어학연수 및 인턴쉽 대행회사
- 호주현지에서 입학취업주제알선, 법률 업무보조

### 교육회사 압구정영어

- 대 표 : 김 혁균(현대그룹출신)
- 원어민 전화화상영어회화 교육
- 호주 출판전 랭커지코스 교육
- ah-english.com 070-7433-0594
- 초·중·고 국가영어 능력평가시험 교육종

##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

**관상 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순자병법에 "장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놓고 그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지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를 부쳐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1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과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9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학 고급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초급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고급	9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 1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 1일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화·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 정가 라운지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명진씨



김명진(48·사진) 전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의원)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민주당은 분야별 전문가 공모를 통해 김명진 전 실장을 비롯한 원외 인사들을 정책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

김명진 부의장은 "원외 부의장 구성이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와 전당대회가 기다리고 있어 의원들 마음이 '꽃밭'에 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부의장은 원외 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는 점을 비롯한 원외 인사들을 정책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

김명진 부의장은 "원외 부의장 구성이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와 전당대회가 기다리고 있어 의원들 마음이 '꽃밭'에 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부의장은 원외 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는 점을 비롯한 원외 인사들을 정책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광주 남도당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내달 2일 실시할 예정이다.

거에 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28일 한나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과 김광만(50)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정업(64) 광주 광산을 당협위원장 2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

김 전 시당위원장은 '친박계'로 각각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519명이며, 광주시당에서 열리는 선거에서는 투표 당일 10분간 후보자 정견발표 시간이 주어진다.

한편, 한나라당 전남도당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내달 2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부의장은 원외 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는 점을 비롯한 원외 인사들을 정책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부의장은 원외 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는 점을 비롯한 원외 인사들을 정책부의장으로 선임하고 부의장으로 부임했다.